

내년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군 점차 가시화

한나라당 공천 최대 관심사, 3~4명 구도 예측

내년 5월30일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7~8명의 포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천을 전제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4명선에 이르고 있어 실제 선거전에 후보는 대략 3~4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천타천 포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현직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서장원 열린우리당 포천시 당원협의회 회장, 이상만 경기도의원, 오병익 경기도의원, 홍찬기 전석유협회 부회장, 한창수 전포천군 기획과실장, 이흥구 포천시의회 의원, 박용구 행정학 박사 등이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직 시장을 공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지지기반을 꾸준히 다져 왔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내년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고 포천군의회 의장 역임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포천군수 출마 경향을 토대로 인지도가 높아 이번에는 한번 해 볼만하다는 입장을 경계하고 있다. 또 200년 6·4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민과 서민들을 만나 지지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이상만 경기도의원은 포천군의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고 현 도의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후보군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고 현 국회의원 당선과 한나라당 공천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공천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농민단체 구성에 공헌한 점을 감안한다면 농민과 소시민 등 블루칼라 층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 오병익 경기도의원은 주변여건에 따라 무소속 시장 출마와 경기도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의원은 포천 토박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무소속으로 시장후보 출마로 가락을 잡고 있지만 중앙정치 혹은 지역정치의 상황변화를 지켜보면서 무소속 시장출마 혹은 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찬기 전석유협회 부회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무소속이라는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한나라당 공천을 전제로 출마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포천군수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한창수 전포천군 기획과실장도 시장 후보군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흥구 포천시의회 의원 또한 포천시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소흘읍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열린우리당 경선에 참여할 뜻을 내비치면서 시장후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또한 재경포천시민회와 포천중고 동문회 등의 지지기반을 토대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박용구 행정학 박사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내 경선 실시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허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양문폐수처리장 사태 결국 법정공방

시운전 업체, 기성금 받지 못해 수질사고 우려된다 중진공, 자신 주장 관철시키려고 상식이하 행동한다



양문폐수처리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이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중진공(주)을 상대로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진공은 시운전업체인 E&B TECH(이엔비테크)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양문폐수처리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이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중진공(주)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시운전 업체인 E&B TECH(이엔비테크)를 중진공이 지난 22일 의정부 지법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중진공과 폐수처리비용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3월10일 현장을 철수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과 시운전 계약을 맺고 있는 E&B TECH(이엔비테크)는 계약당사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양문폐수처리장 비상위탁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현재까지 7억여원의 폐수처리 약품대금과 인건비 등 시운전비용(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질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철수한 상태에서 E&B TECH(이엔비테크)는 2월말 이후 현대산업개발을 발주처인 중진공과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잔류하게 됐다고 밝히고 E&B TECH(이엔비테크)가 2월 철수 또는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나 시공사와 계약관계를 이유로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후 E&B TECH(이엔비테크)는 현대산업개발에 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중진공과 협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E&B TECH(이엔비테크)는 중진공과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에서 3월과 4월분 시운전비용(기성금)을 양측에 요구했으나 분쟁을 이유로 거부당한 상태에서 양문폐수처리장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질사고 위험이 제기되자 중진공은 E&B TECH(이엔비테크)의 현대산업개발 채권을 양도받아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확정금액과 지급조건 및 기준과 절차 등의 합의를 찾지 못하고 다툼이 장기화 됐다고 밝혔다. 또 E&B TECH(이엔비테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진공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운전비용(기성금)을 받지 못해 화공약품 및 슬러지처리비용 등을 지불하지 못해 수질사고 위험이 있다고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진공은 수질사고 위험을 고려해 3.4월 시운전비용(기성금)을 지급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이후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이의제기시 관련자료를 첨부해 재 요구하면 비용을 재검토 및 재정산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재청구하지 않고 시운전비용(기성금) 부족으로 수질사고를 낼 수 밖에 없다는 협박성 공문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진공 관계자는 최근에 와서는 E&B TECH(이엔비테크)측이 채권양도 사항을 등가(비용검사 없이 정구금액 전액지불)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질사고 위험성을 비롯한 하청동원 실력행사, 기성 지불처리 등 수질공공 등 불법적인 실행을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진공은 기성금을 지불하기 위해 계획서와 각서 징구 및 이행각서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지불에 대한 각서만 요구했음에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하고있어 2차례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에 수질조사를 의뢰, 수질검사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태에 대비해 10여명을 양문공단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조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업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재경포천시민 등 출향 시민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들께서는 자동이체를 이용해서도 됩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본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7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과 직접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은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서로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에 계좌입금하신 분들을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고마운 분들과 지금은 비록 어려워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키워 나가는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포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성금 및 물품 접수내역

- 조정선 조사위원 30만원
- 서금자 2만원
- 김중현 조사위원장 20만원
- 고남석 제일사우나 대표 41만원
- 박정민 1만원
- 서금자 2만원
- 박운중 10만원
- 주부मंत्री자단 임경순 단장과 임원일동 10만원

▶ 성금 및 물품 전달내역

- 김민주 유아초등학교 1년 10만원
- 이수지 유아초등학교 3년 10만원
- 김수진 유아초등학교 4년 10만원
- 김성진 유아초등학교 5년 10만원
- 윤나라 유아초등학교 5년 10만원

불우이웃돕기 문의 : 031-542-1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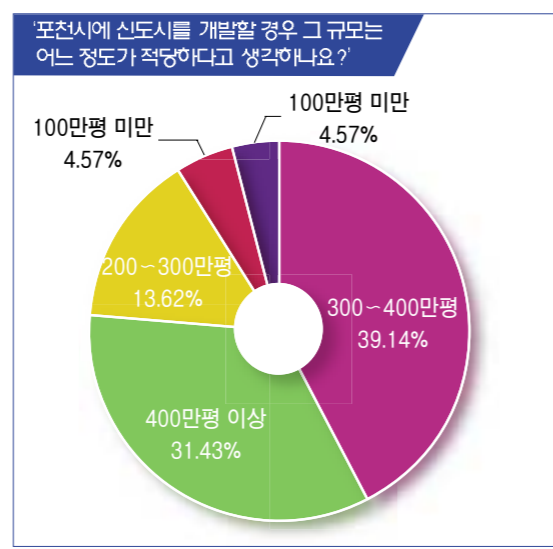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창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천신문

포천 신도시 개발규모 300~400만평 적절 본지 라이폴 인터넷 여론조사, 1050명 참여

지난 7월27일부터 8월30일까지 33일간 실시한 '포천시에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에 관한 본지 인터넷(www.ipcs21.com) 라이폴 여론조사 결과 300~400만평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39.14%로 가장 높았다. 본지 인터넷 여론조사에 응한 네티즌은 105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300~400만평 규모라고 응답한 네티즌이 411명으로 39.14%를 차지했다. 또 400만평 이상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30명으로 31.43%로 그 뒤를 이었으며, 13.62%인 143명은 200~300만평, 100만평 미만의 미니신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명으로 4.57%, 관심없다는 의견은 39명으로 3.71%를 차지했다. 포천시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경기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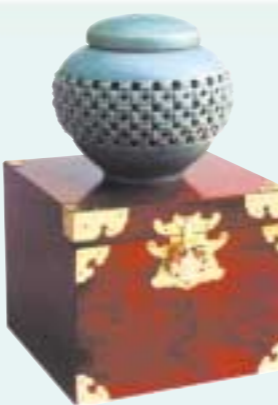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꽃샘 추석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고려홍삼물세트
홍삼 1000g



꽃샘토종고구1호
토종꿀 2400g



꽃샘특선봉밀1호
잡화꿀 2200g



꽃샘1호
아카시아꿀 1200g
잡화꿀 120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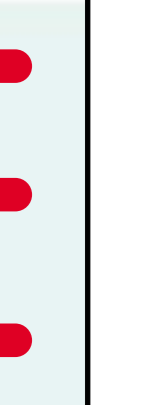
꽃샘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솔잎차 1000g



꽃샘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꽃샘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 600g
대추꿀차



꽃샘 기획세트 2호
영지 꿀 차 1200g
잡화 꿀 1200g